광주지역 아파트값 5주 연속 '하락'

이번주 -0.04%…전국 대부분 약세
서울 강남구는 6개월 만에 보합 전환

올해 초 치솟던 광주 아파트값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봉선동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한 광주의 아파트값이 5주 연속 하락했기 때문이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 전셋값의 약세가 이어진 가운데 광주 가격 하락폭은 지난주(-0.05%)보다 둔화했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지난달 29일 조사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8%, 광주는 0.04% 각각 하락했다.

전국의 경우 25주 연속 하락세 속 지난주(-0.10%)보다 낙폭은 다소 축소된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0.06%에서 금주 -0.05%로 하락폭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 10월22일 조사 이후 27주간 하락세를 기록한 강남구 아파트값이 6개월여 만에 하락을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했다.

3월 중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이후부터 급매물이 팔려나가면서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69㎡는 16억-16억5천만원에 매물이 나오고, 전용 84.43㎡는 18억-18억5천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최근 급매물 소진 이후 추격 매수세는 지난달만 못하다는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송파구의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3% 하락했고, 서초구(-0.07%)와 강동구(-0.22%)는 지난주보다 낙폭이 줄면서 강남4구(-0.07%) 아파트값도 지난주(-0.08%)보다 하락폭이 둔화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현재 28억-30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강남 뿐만 아니라 광진구와 마포구의 아파트값도 금주 보합 전환했고, 구로와 금천구 역시 실수요층이 움직이면서 보합을 기록했다.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15%에서 이번주에는 -0.10%로 하락세가 둔화했다.

광명(-0.28%)·과천(-0.22%)·분당(-0.14%)·하남시(-0.12%) 등 주요 지역의 약세가 지속됐지만 낙폭은 지난주보다 줄었다.

지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9% 떨어졌다.

새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와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강원도(-0.22%)의 아파트값이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내렸다. 세종(-0.11%)·충북(-0.20%)·전북(-0.05%) 등지는 지난주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10%에서 금주 -0.08%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이 지난주와 같은 0.05% 하락했고 경기(-0.10%)와 인천(-0.02%) 등 수도권은 지난주보다 낙폭이 둔화했다. /임후성 기자

공공기관 신입 연봉 평균 3천530만원

1년새 3.3% 증가…대구경북과기원 5천174만원 '최고'

국내 공공기관의 80% 이상이 지난해 신입사원 연봉을 3천만원 이상 지급했으며, 특히 2곳은 초임 연봉이 5천만원을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361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입사원 연봉은 평균 3천53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3천418만원)보다 3.3% 증가한 것이다. 조사대상 기관 가운데 77%는 전년보다 초봉이 올랐다고 밝혔다.

연봉 구간별로는 3천만원 이상을 지급한 공공기관이 전체의 82.3%에 달했으며, 4천만원 이상을 지급한 곳은 전체의 23.0%였다.

지난해 신입사원 연봉이 가장 높았던 공공기관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5천174만원이었다.

이어 ▲한국원자력연구원(5천26만원) ▲중소기업은행(4천968만원) ▲한국산업은행(4천936만원) ▲ 한국과학기술원(4천852만원) ▲항공안전기술원(4천726만원) ▲한국연구재단(4천716만원) ▲서울대병원(4천680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4천669만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4천660만원) 등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전년 대비 연봉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아시아문화원으로, 36.8%(2천520만원→3천447만원)에 달했다. /연합뉴스

코스피 2,210선 회복 코스피가 2,210선을 회복한 2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유위니아 '2019년형 제습기' 출시

진동·소음 줄이고 효율 높여

대유위니아는 에너지 소비 효율은 물론 편의성까지 뛰어난 '2019년형 위니아 제습기'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2019년형 위니아 제습기'는 위니아만의 기술력이 적용된 '듀얼 컴프레서'를 장착해 두 개의 실린더가 움직이며 진동과 소음을 줄이고 효율은 높여 더욱 강력한 제습이 가능하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 모든 라인업은 대한아토피협회로부터 '아토피 안심마크'를 획득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한 기능으로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희망습도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습도를 조절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터보 모드 가동시에는 일반건조보다 최대 8.1배 빠르게 건조한다.

상단에 위치한 블레이드는 자동으로 회전하며 제습된 공기를 집안 곳곳으로 넓게 퍼뜨려준다. 습기가 많은 구역에서 가동시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 사계절 내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임후성 기자

계좌이동 서비스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 확대

숨은 금융자산찾기 제2금융권·증권사에 도입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납부 내용을 한 번에 조회·변경·해지할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 주거래 계좌로 이전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2금융권과 증권사에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오전 카드·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인포'를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을 방문해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각 카드사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 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2015년 7월 이후 은행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계좌를 이동하는 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가 추진돼왔지만, 은행권 위주로만 한정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들 서비스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올해 하반기 계좌이동 서비스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 도입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제2금융권 간 이동도 가능해진다.

또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언제든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 이동 서비스가 올해 말부터 차례로 실시된다.

당국은 이를 위해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주거래 계좌나 카드를 바꿀 경우 이들 서비스를 이용해 자동이체·납부를 편하게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과 증권사(22곳)에서도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고를 이전하고,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연합뉴스

● 투데이 경제

광주노동청 '추락재해 예방' 캠페인

광주고용노동청은 2일 광산구 하남3지구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밀집지역에서 '추락재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추락재해예방 감독 실시 전에 자율개선 유도 목적이다. 향후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가시설물 설치,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착용 등 위주로 오는 13일부터 추락재해예방 감독을 실시한다.

김영미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예방이 가능하다"며 "원청은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설치·관리할 것과, 노동자는 개인 보호구 착용을 완벽히 할 것"을 당부했다. /임후성 기자

중진공 지역본부, 1차 스케일업 금융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와 전남지역본부는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제1차 스케일업 금융'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스케일업 금융은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후성 기자

중기중앙회 '원로자문위원회' 출범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오전 연륜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망 있는 협동조합 원로를 대상으로 구성한 '원로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협동조합 전·현직 이사장 40여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이들은 업계 원로로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정책자문, 협동조합 간이견 조정및 협력 활성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 확산 등 실질적인 의무 부여를 통해 그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임후성 기자